

경제추격지수와 한국경제에의 시사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류 덕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 준 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 들어가며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유래 없이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한 국가의 경제성과가 단순히 어느 한 국가만의 경제활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 지식과 기술의 전파, 정책효과의 외부효과 등 다양한 경로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성과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국가의 경제성과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국가의 때 시기 경제성과를 보다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한 국가의 경제추격 정도, 즉 최상위 선진국과의 상대적 격차를 통해 각국의 경제성과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그 증가율은 특정 국가의 주어진 기간 동안의 경제성과를 잘 보여주는 좋은 지수이다. 그러나 그 지표 자체로는 다른 나라와의 격차나 상대적 성과를 보여주기에 미흡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1인당 GDP나 그 증가율만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1인당 소득 대비 몇%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며, 또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최상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의 정도와 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째, 각국의 1인당 소득이 최상위 국가의 그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둘째, 그 차이가 얼마나 줄어들거나 확대되었는지 그 변화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최근 필자가 주축이 된 사단법인 경제추격연구소의 연구팀이 작성한 경제추격지수 및 추격속도지수는 바로 이 두가지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지수로 이해될 수 있다.¹⁾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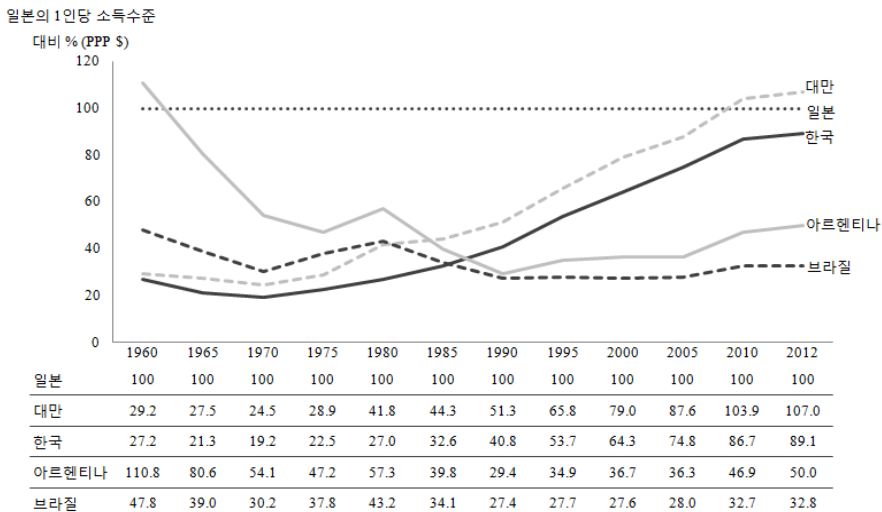
1) 추격지수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추격연구소(www.catch-up.org)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

에서는 이 추격지수의 작성방법과 내용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간단한 정책 시사
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한국경제의 성과 평가와 추격지수의 필요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몇 안 되는 성
공적인 국가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다. 그러나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으로 평가해볼 때 대
만은 이미 2000년대 말부터 일본의 소득수준을 추월하였으나 한국은 수년째 일본의 1인당 소득
의 90% 수준을 넘지 못하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즉 1인당 GDP나 그 증가율로
평가해볼 때 한국과 대만 모두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추세로 성장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의 주요 추
격대상국인 일본의 소득수준과 상대적 관점에서 평가해본다면 2000년대 말 부터 한국경제성장의
성과가 일본경제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추격지수는
바로 국가 간 경제성장의 상대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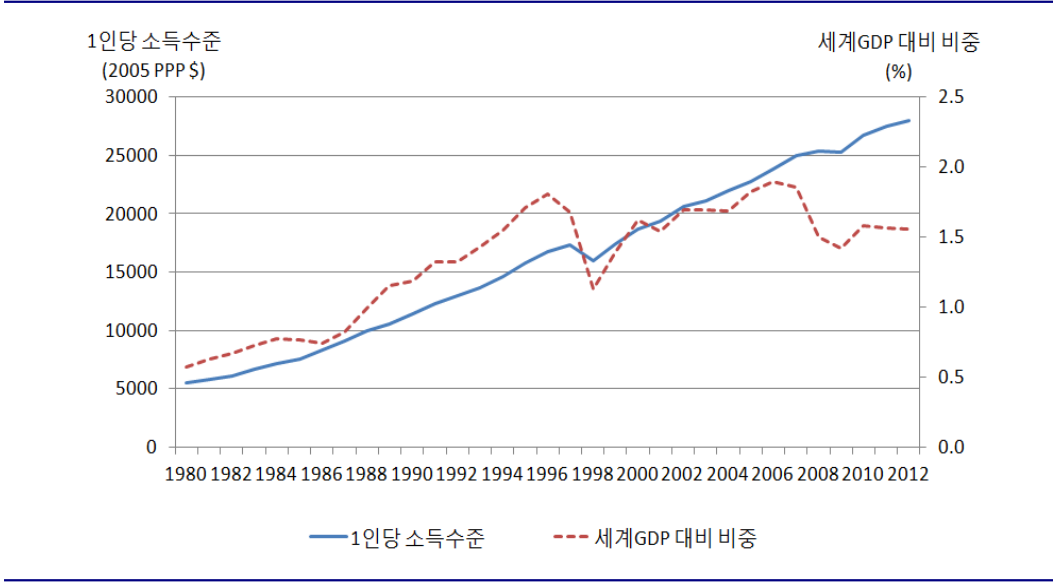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1인당 소득수준 대비 주요국의 소득수준의 장기 추세



한편 각국의 경제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차이뿐 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상대적인 경
제규모도 중요하다. 1인당 GDP로 표현되는 소득수준은 한 국가 내 국민 개개인의 후생수준을 대
표한다면 각 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경제 내에서 각국의 경제적 위상을 대표한다. 국가의 경제
성과는 단순히 1인당 소득수준으로만 환원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력도 함께 고
려하는 것이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할 것이다. 각 국의 상대적인 경제규모는 전 세계

총생산 대비 각국의 경상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을 구매력으로 평가한 1인당 소득수준과 세계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상GDP 비중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는 두 가지 지표 모두 비슷한 양상을 갖고 성장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와 회복기 이후 양 지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1인당 소득수준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세계 속 한국경제의 비중은 1.5~1.9% 수준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단순한 1인당 소득수준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도 평가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추격지수는 1인당 소득수준 이외에도 경제규모를 기초로 하여 전 세계에서 경제비중이 가장 큰 나라인 미국 대비 각 나라의 경제비중과, 그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 되는가 그 변화율을 모두 지수화하여 국가성장의 다양한 면모를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그림 2>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 성과(1980~2012년)



국가추격지수에서 주요 경제변수는 1인당 실질 GDP와 전 세계 GDP에서 특정국가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경제추격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국가는 한국의 경제추격 대상 선진 6개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과 한국의 치열한 경쟁대상 8개국(대만,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으로 한국 포함 15개 국가들의 GDP 합은 2011년 기준 경제규모 상위 100개국 GDP 합의 69.2%에 달한다(<표 1>). 따라서 추격지수 산정대상 전체 100개국의 경제추격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요 경쟁대상 국가들인 15개국의 경제추격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1인당 GDP와 GDP 비중 : 주요 15개국

	2005	2008	2011	2012	2005	2008	2011	2012
	1인당 GDP (2005 PPP \$)				GDP 비중 (%)			
미국	44,224	44,781	44,389	45,297	28.54	24.03	22.16	22.72
일본	30,441	31,234	30,741	31,412	9.96	7.92	8.41	8.33
독일	30,221	32,858	33,631	33,875	6.04	5.94	5.18	4.80
중국	4,102	5,697	7,403	7,933	4.92	7.38	10.45	11.50
프랑스	30,548	31,388	31,074	30,922	4.66	4.64	3.97	3.66
영국	32,665	33,796	32,243	32,038	5.06	4.42	3.52	3.46
이탈리아	28,079	28,282	26,837	26,118	3.90	3.78	3.13	2.82
대만	26,657	29,658	33,295	33,604	0.80	0.65	0.66	0.66
한국	22,783	25,339	27,554	27,991	1.84	1.52	1.59	1.58
러시아	11,799	14,679	14,792	15,347	1.66	2.71	2.71	2.84
브라질	8,520	9,596	10,291	10,292	1.92	2.70	3.53	3.15
멕시코	12,794	13,391	13,146	13,460	1.90	1.80	1.66	1.65
말레이시아	11,840	13,393	14,164	14,713	0.31	0.38	0.41	0.43
남아공	8,654	9,502	9,754	9,883	0.54	0.45	0.57	0.54
인도네시아	3,185	3,631	4,118	4,313	0.62	0.83	1.21	1.23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소득수준변수와 경제규모변수는 각각 기초 단위에 차이가 있다. 즉 소득수준변수는 기존에 널리 쓰이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에 기반 한 1인당 실질 GDP로 표현되며, 새롭게 제안하는 경제규모변수는 국가의 경제력(economic power)과 시장규모를 나타내기 위하여 경상가격으로 표현한 한 국가의 GDP가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각각 구매력 단위와 경상가격 단위로 표현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나라가 수출을 늘려 성장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정책이 1인당 GDP 성장률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상달러로 표시한 GDP비중은 평가절하 효과로 인해 별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는 취지가 있다. 가령, 자국 통화 가치가 10% 평가절하 하였고, 고환율정책으로 자국 통화표시 경제규모가 10% 증가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대비하여 평가해보면 달러 표시 GDP는 제로성장하게 되는 결과가 가능하다. 즉 환율정책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의 성장은 세계경제 전체에서 자국의 경제력을 확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GDP 비중의 또 다른 유용성이 있다.

3. 추격지수 추산 방법과 결과

구체적으로, 국가추격지수(International Index of Catch-up of Nations)는 평균추격지수

(Index of average Catch-up)와 평균추격속도지수(Index of average Catch-up speed)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수는 소득수준과 경제규모의 세부지수들로 구성된다(<표 2>). 평균추격지수는 특정 국가의 경제추격의 상대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는 소득수준추격지수와 경제규모추격지수라는 두 가지 100점 만점의 세부지수의 평균으로 구성된다. 소득수준추격지수(Level catch-up index)는 특정 국가의 소득수준이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와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인 반면, 경제규모추격지수(Size catch-up index)는 특정 국가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가장 큰 나라 대비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한편 평균 추격속도지수는 특정 국가의 경제추격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 역시 소득수준과 경제규모라는 두 측면의 100점 만점의 세부지수의 평균으로 구성된다.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Level catch-up speed index)는 특정국 1인당 GDP가 전 세계 평균 대비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증가하는지를, 상대적 연간 증가율로 보여주는 지수이다. 반면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Size catch-up speed index)는 각국의 GDP 비중이 전 세계 평균 대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상대적 연간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는 지수이다.

<표 2> 국가추격지수의 기본 구성

	평균추격지수	평균추격속도지수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	1인당 국내총생산 (실질가격, PPP달러)	상대화(demeaned)된 1인당 GDP의 성장률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	전 세계 대비 국내총생산 비중 (%) (경상가격, 미국달러)	상대화(demeaned)된 GDP 비중의 성장률

위의 두 추격지수는 경제추격의 각기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즉, 평균추격지수는 특정 국가가 경쟁대상국이나 1등 국가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내었는가를 측정하는 지수임에 반해, 평균추격속도지수는 비교대상국가들 내에서 특정국가의 위치변화속도를 반영하는 지수이다. 두 가지 추격지수 모두 각기 0에서 100의 값을 갖는 수준 및 규모지수의 단순평균으로 산출된 값을 100만점으로 다시 환산한 상대점수이다.

1) 추격지수

위의 방법에 의거하여 전 세계 상위 100개국의 2000~12년 동안의 경제성장을 통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개년의 평균추격지수를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표 3>은 한국을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경제추격 대상국 및 주요 경제추격 경쟁국 등 주요 15개국의 2012년 평균추격지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15개국 중 미국이 1인당 GDP와 GDP비중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추격지수와 경제규모추격지수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서도 확인

된다. 따라서 2012년 평균추격지수 산정 결과 미국이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1년 이래로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경제추격의 정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다는 것인데, 경제규모추격지수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이다.

<표 3> 2012년 평균추격지수 : 주요 15개국

국가	평균추격지수		소득수준추격지수			경제규모추격지수		
	지수	순위	1인당 GDP (2005 PPP \$)	지수	순위	GDP 비중 (%)	지수	순위
미국	100	1	45,297	51	5	22.7	100	1
일본	47	4	31,412	35	20	8.3	37	3
독일	39	6	33,875	38	15	4.8	21	4
중국	39	7	7,933	8	71	11.5	51	2
영국	34	11	32,038	35	19	3.5	15	6
프랑스	33	13	30,922	34	22	3.7	16	5
이탈리아	27	18	26,118	29	27	2.8	12	9
대만	27	20	33,604	37	16	0.7	3	27
대한민국	25	24	27,991	31	24	1.6	7	15
러시아	19	31	15,347	16	46	2.8	12	8
브라질	16	38	10,292	11	61	3.2	14	7
멕시코	14	42	13,460	14	52	1.6	7	14
말레이시아	11	49	14,713	16	47	0.4	2	35
남아공	8	62	9,883	10	62	0.5	2	29
인도네시아	6	71	4,313	4	83	1.2	5	16

주: 순위는 전체 100개국에서의 순위임.

한국의 경우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27,991달러로서 세계 24위이고, 경제규모는 1.58%로서 15위이다. 이를 추격지수로 표시하면 소득수준추격지수는 31점으로 24위, 경제규모추격지수는 7점으로 15위로서 이를 통해 산출한 평균추격지수는 25점으로 세계 24위이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7,554달러로 세계 24위였던 2011년과 동일하고, 경제규모 역시 2011년의 1.6%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15위로 순위는 동일하다. 추격지수로 표시해보면 2011년 소득수준추격지수는 30점 24위, 경제규모추격지수는 7점 15위로서, 평균추격지수는 25점의 세계 25위로 2012년의 평균추격지수는 2011년 대비 한 단계의 순위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주요 경제추격 대상국인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추격지수로는 프랑스 34점(22위), 일본 35점(20위), 이탈리아 29점(27위) 등에 약간 못 미치는 위상을 보여주었지만, 경제규

모추격지수로는 프랑스 16점(5위), 일본 37점(3위), 이탈리아 12점(9위)에 비해 아직도 많은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난다. 한편, 한국의 주요 경쟁대상국들과 소득수준추격지수를 비교해보면 대다수 국가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나나, 대만(37점, 16위)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추격성고가 약간 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규모추격지수로 비교해본다면, 한국은 7점 15위로 주요 경쟁대상국인 중국 51점(2위), 브라질 14점(7위), 러시아 12점(8위) 등에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았으나 중반 이후 한국을 추월하였다.

2012년 평균추격지수의 상위 30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2001년 이래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뒤를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카타르와 룩셈부르크가 각각 2위와 3위,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은 각각 4위와 5.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GDP로 산출한 소득수준추격지수에서 영국이나 일본보다 밀린 반면, 대만은 이미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한국의 일본과의 소득수준 격차 축소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 추격속도지수

경제추격의 속도를 반영하는 평균추격속도지수는 2012년 한국이 전체 100개국 중 46점 58위로 2011년 62위에 비해 4계단 상승하였다. <표 4>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15개국의 2012년 평균추격속도지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국가 중 한국은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1.58%로서 세계 51위로, 전년도의 2.87% 상승률로 43위의 성적을 거두었던 것에 비하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비중 역시 전년도에 이어 0.65%p 정도 수준의 감소추세가 계속 되어 전체 100개국 내에서 59위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 GDP비중 순위 57위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결과이다. 이를 추격속도지수로 표시하면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는 50점(51위)로 2011년의 51점(43위)에 비해 1점 하락이고,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는 31점(59위)로 2011년의 29점(57위)에 비해 지수는 2점 상승, 순위는 2계단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한 평균추격속도지수는 46점으로 세계 58위를 기록하여, 전년의 38점으로 세계 62위의 성적을 거둔 것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었다.

2012년 평균추격속도지수를 상위 30개국 중심으로 살펴보면 에티오피아가 전년도 1위인 카타르를 제치고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전년도 2위였던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에도 95점으로 2위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2011년도 9위에서 2012년 4위로 추격속도성고가 더욱 좋아졌다. 평균추격지수와 달리 평균추격속도지수는 추격 속도를 반영하기에 경제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큰 경우 높은 값을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크고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값과 순위를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평균추격속도지수 성과는 주요 경제추격 대상국들의 성과보다는 다소 앞서지만 현재의 주요 경쟁대상국들에 비

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평균추격속도지수는 몇 년 연속으로 선진국과 대비하여서도 추격 속도가 둔화되어 장기적 성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일본의 평균추격속도지수가 47점(51위)로 전년도 28점(86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드러나, 지수와 순위에서 한국을 역전함과 동시에 한국보다 추격속도가 빠른 나라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감은 더해간다.

<표 4> 2012년 평균추격속도지수 : 주요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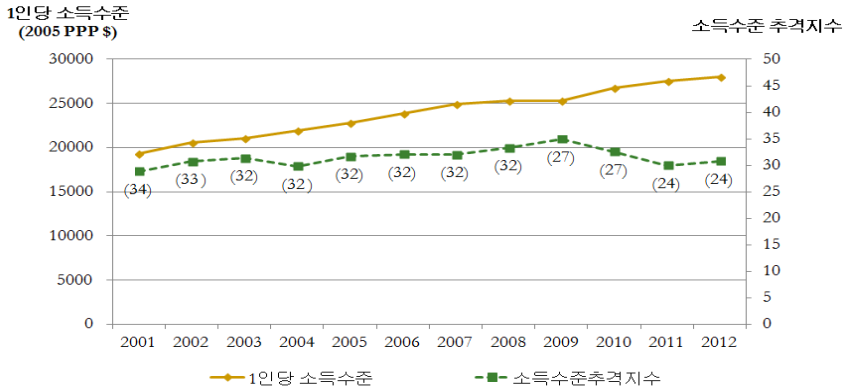
국가	평균추격속도지수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		
	지수	순위	1인당 GDP 성장률 (%)	지수	순위	GDP 비중 성장률 (%)	지수	순위
중국	78	4	7.17	86	4	10.06	53	11
인도네시아	60	25	4.73	70	14	1.77	36	50
러시아	60	27	3.75	64	24	4.77	42	31
말레이시아	58	29	3.87	65	23	3.34	39	43
미국	51	41	2.05	53	40	2.51	38	47
멕시코	49	46	2.39	55	34	-0.57	31	58
일본	47	51	2.18	54	36	-0.91	31	60
대한민국	46	58	1.58	50	51	-0.65	31	59
대만	44	61	0.93	46	58	0.16	33	55
남아공	38	72	1.33	48	54	-6.35	20	75
영국	37	74	-0.64	36	79	-1.50	29	61
독일	35	77	0.73	45	63	-7.43	17	79
프랑스	30	81	-0.49	37	77	-7.99	16	83
브라질	28	83	0.00	40	73	-10.75	10	90
이탈리아	19	92	-2.68	23	91	-10.11	12	88

주: 순위는 전체 100개국에서의 순위임.

3) 한국의 경제추격 추세: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001년 구매력으로 평가한 한국의 1인당 실질소득은 2만 달러가 안 되었으나, 2009년 25,000달러를 돌파하며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수준추격지수가 2001년 25점 부근에서 2009년 35점까지 상승하는 것에도 잘 나타난다(<그림 3>). 전 세계 상위 100개국 가운데 순위로 본다면 2001년 34위에서 2008년 32위로, 2011년에는 24위(31점)까지 상승한 것이며, 2012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24위(31점)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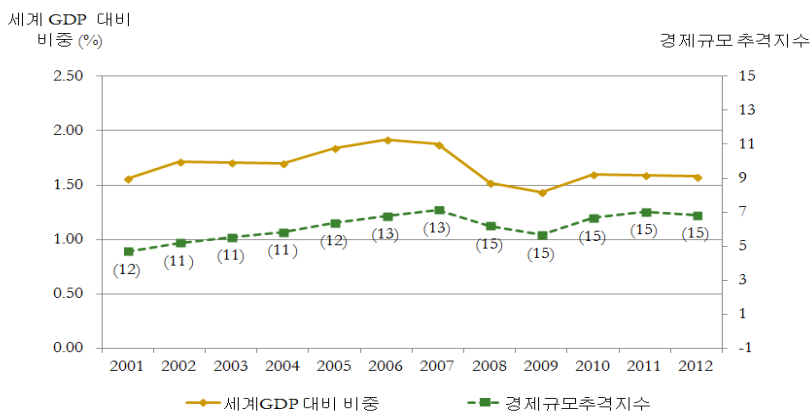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소득수준추격지수와 국가순위 추이



주: 괄호 안은 전체 100개국에서의 순위임.

세계총생산 대비 한국의 경제규모 비중은 2001년 1.6% 수준에서 2006년에는 2%에 근접할 정도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급속도로 하락하였고, 2011년에는 1.59%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였으나 2012년은 다시 1.58% 수준으로 약간 하락하였다 (<그림 4>). 경제규모추격지수로 보면 2000년 대 한국의 경제성과는 5점에서 7점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정체현상이 뚜렷하다. 순위로 보면 2001년 12위에서 2007년 13위, 2011년 15위, 2012년 15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 성장은 둔화되는 한편,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를 위시한 다른 신흥 경제대국의 고성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한국의 경제규모추격지수와 국가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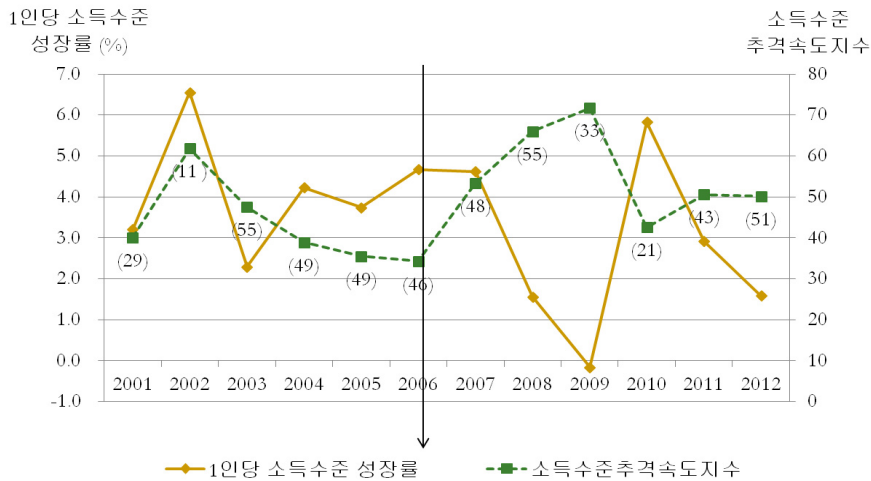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100개국에서의 순위임.

소득수준추격지수와 경제규모추격지수를 통해 산출한 한국의 평균추격지수는 2001년 21점에서 2007년 25점으로 꾸준히 상승 후, 2012년 까지 5년 동안 25점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순위는 2001년 30위를 시작으로 2008년 27위, 2011년 25위를 거쳐 2012년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구매력으로 평가한 한국의 1인당 실질소득의 연간 성장률은 2002년 6%이 넘는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0.1%로 성장이 후퇴하였다. 이후 2011년에 3%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1.5% 수준의 저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 이에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2년 62점 11위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6년 34점으로 46위에 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7년부터 소득수준추격속도가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72점으로 34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재차 하락세를 보인 2011년에는 51점으로 43위를, 2012년에는 50점으로 51위를 차지하였다. 1인당 소득 성장률로 볼 때 2003~2007년 기간의 평균 4%대 성장률은 괜찮은 성과로 보이나, 같은 기간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 역시 좋아 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평가해보면 최종적인 평균추격속도지수는 2003년 42점에서 10점대로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1인당 소득의 증가율로만 경제성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의 한계와 추격속도지수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 5> 한국의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와 국가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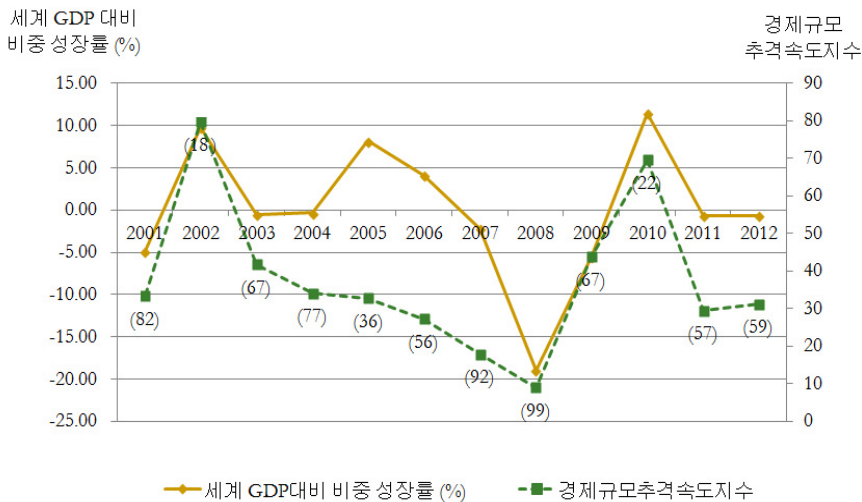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100개국에서의 순위임.

한국의 세계 대비 경제규모 비중의 변화율은 2002~2007년 기간에 0%에서 10%대 변화율 사이를 오르내리지만, 상대적 성과를 반영한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로 보면 80점에서 20점으로 일관되게 하락하는 기간이었음이 드러난다(<그림 6>). 한국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의 일관적인 하

락은 2008년에 최하위를 기록하며 10점 밑으로 떨어져 99위를 기록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에야 70점대로 복귀하였으나, 재차 하락하여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30점대로 추락하였다.

<그림 6> 한국의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와 국가순위 추이



주: 괄호 안은 전체 100개국에서의 순위임.

소득수준추격속도지수와 경제규모추격속도지수를 통해 산출한 한국의 평균추격속도지수는 2002년 71점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추락하여 2008년 12점으로 99위의 최저순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0년 65점의 23위로 회복기간을 거친 후 다시 1년 만에 28점 62위로 대폭 하락 후, 2012년에는 46점 58위로 전년대비 추격속도가 다소 개선되었다.

5. 추격지수 결과 요약과 정책 시사

한국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2년의 경우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GDP비중이 1.58%로 2011년의 1.59%대비 약간 하락이고, 2008년의 1.54%보다 약간 상승이나, 2005년의 1.87%보다는 상당히 하락한 것이다. 즉 한국의 경제규모는 최근 7년 사이 상대적으로 하락, 추락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상대적 하락은 2012년의 경우 평균추격지수로는 전체 100개국 중 25점으로 24위, 최근 변화를 반영하는 평균추격속도지수로는 46점으로 5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평균추격속도지수의 경우 2010년의 65점(23위)과 비교하여 2011년 38점(62위)으로 급락 이후 회복세가 더디다.

특히 추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평균추격속도지수가 46점에 58위라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고속 추격국가가 아니고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 수준이거나 혹은 하락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세대를 잘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2년 일본과 대비하여서도 1인당 소득수준의 상승과 경제규모 증가속도를 평균한 추격속도지수에서 그 순위가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2011년 한국의 평균추격속도지수는 38점(62위)에서 2012년 46점(58위)로 개선되었으나, 같은 기간 일본은 28점(86위)에서 47점(51위)로 대폭 상승함에 따라 추격속도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 경제추격 대상 국가들인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싱가포르의 절반,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평균추격지수로는 아직도 절대적인 의미의 추격성고가 낮다. 현재 경쟁 상대국들인 대만,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추격의 성과가 낮아 선진국으로의 정착 과정에서 정체되고 있는 현재 한국경제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은 1인당 소득수준이 일본의 그것을 이미 2010년에 넘어서 이 기준으로 보면 일본대비 추격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은 몇 년째 일본 대비 90%에서 성장이 정체되어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면, 왜 한국의 일인당 소득이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대만보다 높으면서, 구매력 평가(PPP)에 의한 환율로는 대만보다 못하는가. 그 간단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구매력을 고려한 환율(PPP)이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한국에서는 물가가 높아, 실제 생활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직접적 정책 시사는 한국은 물가의 하향 안정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사는 보다 큰 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한국경제에서 몇 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과거의 수출(성장율) 중심에서 고용(율)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기되었다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물가)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즉, 과거 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제품으로부터 국내품을 보호하고 독과점에 대해 관대했다면, 이제는 관심을 소비자에게 돌려, 수입을 자유화하고 독과점과 시장지배적 행위에 엄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낮추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일련의 FTA는 적절한 선택이었고, 그 효과가 물가하락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유통시장 개선을 통한 보다 경쟁적 유통체제 확립이 필요하여 보인다. 한편, 현 정부 하에서 진행된 소위 골목 상권 보호는 그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이는 비효율적 생산자 보호 정책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확실한 사회적 비용이 큰 정책이다. 그 보다는, 경쟁을 자유화하되 이로부터 대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영업상 어려움을 받은 골목상권에 대한 직접적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여 보인다. 즉, 과거 FTA 체결 시 이에 대한 피해를 보는 농가 등에 보상을 주되 FTA자체는 추진하는 방식이 경제 전체 효율성과 소비자 이익 면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단과 같은 맥락이다. 즉,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은 다른 방식으로 분리되어야지, 산업정책으로 복지효과를 동시에 추가하려는 것은 혼선을 낳는다. 즉, 보

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이들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 것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재원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겠다.